

# 여야, 제주항공 참사 '유족 지원' 한목소리...사고수습 집중

국힘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민주당 "유족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여야 정치권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이들은 30일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운영 중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묵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공항에서 유족들을 만나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 와서 유족을 뵈고 잠담한 모습을 보니 정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헤아릴 수 없는 유족의 슬픔 앞에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가족의 슬픔 앞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만난 뒤 무안공항 별관으로 이동해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현장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군에 있는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며, 우리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항공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한다"며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추모 묵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없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며 피해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또 "대책위원회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가짜뉴

스막기 등에 힘쓰고 있으며, 유가족 지원 자원봉사단에 80여명의 당원을 합류시켰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황운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국

혁신당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적어도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달라"며 "지금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호소하고 계신다. 아주 작은 유가족의 바람 한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유가족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을 당 차원에서 시작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유가족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 인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도 이날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를 시작으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권성동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 김선민 권한대행 등이 잇따라 헌화·묵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참사 수습' 당면한 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처리 고심

오늘 정례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지만, 쌍특검법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한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 (31일) 정례 국무회의는 열어야 한다"면서도 "내일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뒤 이례적으로 휴일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세종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야당이 강행 처리할 두 특검법에 위험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

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이전처럼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외중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모습으로 보일 경우 여론의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최 권한대행도 역사와 민심의 물줄기, 시대적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다만, 김준민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수용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헌법학자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의무"

헌법학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헌법학자 8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헌정 위기에서 헌법 현안에 대한 올바른 논의를 이끌고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결성된 임시단체다.

김선태 고려대 헌법교수, 이현환 아주대 헌법교수, 전광석 연세대 헌법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민병로 전남대 헌법교수가 상임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자들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

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자제를 요청하면 서도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또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국무총리가 맡든, 차순위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 일 뿐,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현수 목사  
(광주거주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To the World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 단 위		모집 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21	8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84	21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에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